

# 宗氣와 神氣의 關係 考察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sup>2</sup> · 韓國傳統醫學研究所<sup>3</sup>  
宋志青<sup>1, 2</sup> · 琴桐樹<sup>1, 2, 3</sup> · 嚴東明<sup>1, 3</sup>\*

## A Review on ancestral qi[宗氣] and vitality qi[神氣]

Song Ji-chung<sup>1, 2</sup> · Keum Kyung-soo<sup>1, 2, 3</sup> · Eom Dong-myung<sup>1, 3</sup>\*

<sup>1</sup>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Prof.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3</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bjective** : Ancestral qi and vitality qi are the most significant qi in lung and heart. However, the origins and functions of those qi are not quite detailed somehow.

**Method** : I will try to find out the origins and functions of ancestral qi and vitality qi through 『Hwangdineijing』.

**Result** : The ancestral qi is the essence of lung and the vitality qi is the essence of heart .

**Conclusion** : The function of ancestral qi is what puts nutrient qi and defence qi into meridians to make them being rightways of meridians and those of vitality qi is what pushes ahead nutrient qi and defence qi through meridians.

**key words** : nutrient qi, ancestral qi, vitality qi, essence, lung, heart

## I. 序 論

宗氣와 神氣는 各各 肺藏과 心藏을 대표하는 氣이다. 宗氣는 營氣와 衛氣를 體內 循行시키는 推動에너지<sup>1)</sup>로, 神氣는 人體의 精神活動과 關聯된 氣<sup>2)</sup>로 認識한다. 하지만 宗氣가 營氣와 衛氣를 體內 循行시키는 推動

에너지라면 心藏의 搏動과 類似的 機能을 修行하는 것이어서 玆만한 考察이 必要하며, 宗氣의 既存 認識이 心藏의 機能과 重疊되기 때문에 心藏을 대표하는 氣인 神氣에 대해서도 考察이 필요하다.

宗氣와 神氣에 대한 기존 研究로는 「肺의 機能에 대한 研究」<sup>3)</sup>가 肺心の 機能과 宗氣의 生成에 關於하여 考察하였으며, 「元氣 宗氣 營氣 衛氣에 對한 考察」<sup>4)</sup>이 宗氣에 關於하여 전반적인 玆를 考察하여 肺心の 宗氣와 神氣에 對한 先行 研究가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宗氣와 神氣에 對하여 새로운 見解가 있어, 『黃帝內經』을 바탕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 교신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新勇동 344-2 원광대학교 韓의학과 원전학교실  
E-mail: haksan@wku.ac.kr  
Tel : 063-850-6941. Fax : 063-851-6941.  
접수일(2010년 10월25일), 수정일(2010년 11월15일),  
게재확정일(2010년 11월16일)

1)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 위원회, 大學經絡經穴學總論. 원주. 의학출판사. 2009. p.7.  
2)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9. p.130.

3) 방정근. 肺의 機能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2(3). 2009.

4) 차윤근, 전경호, 윤종화. 元氣·宗氣·營氣·衛氣에 對한 高찰. 韓醫學研究所論文集 3卷. 1994.

## II. 本 論

### 1. 宗氣의 機能

宗氣를 營氣와 衛氣를 체내 循行시키는 推動에너지로 認識한다면 心主血脈에서 말하는 心行血의 機能<sup>5)</sup>과 중첩된다. 특히 宗氣에 대한 一般의 說明 中에서 心의 機能으로 推論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素問·平人氣象論』: 胃의 大絡을 虛里라 하니 膈膜을 貫通하여 肺를 絡하고 左乳下로 나와 그 搏動이 뜻에 應하니 脈의 宗氣이다.(胃之大絡名曰虛里貫膈絡肺出於左乳下其動應衣脈宗氣也)<sup>6)</sup>

『靈樞·邪客』: 그러므로 宗氣는 胸中에 쌓였다가 喉嚨으로 나와 心脈을 貫通하고 呼吸을 行한다.(故宗氣積于胸中出于喉嚨以貫心脈而行呼吸焉)<sup>7)</sup>

와 같이 說明한 것이다. 하지만 宗氣는 肺에 屬하기 때문에 肺의 屬性인 金性, 즉 收斂性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宗氣를 「平人氣象論」의 「乳之下其動應衣」와 「邪客」의 「以貫心脈」의 句節을 근거로 ‘宗氣가 營氣와 衛氣를 推動하는 에너지’라 한다면 이는 火性의 長養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心臟과 관련되는 것이지 肺의 宗氣와 關聯지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宗氣의 機能은 火性으로 認識되는 營氣와 衛氣를 經隧內로 循行시키는 推動에너지가 아닌 營氣와 衛氣가 經隧內에서만 運行되도록 收斂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內經』의

『靈樞·經脈』: 음식물이 胃로 들어가서 脈道가 疏通하게 되고 血氣가 이로써 運行하게 된다.(穀入于胃脈道以通血氣乃行)<sup>8)</sup>

『靈樞·決氣』: 營氣를 막아서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脈이다.(壅遏營氣令無所避是謂脈)<sup>9)</sup>

처럼, 營氣와 衛氣를 經隧內로 수렴케 하는 것이 宗氣의 機能이다.

### 2. 肺의 精

水穀의 精微로부터 化生된 精은 腎에 貯藏되었다가 五藏으로 輸布되면 各藏에서 다시 精의 形態로 貯藏되며, 肺에 들어와서도 精의 形態로 貯藏된다. 『內經』에서,

『素問·金匱真言論』: 西方의 白色은 인체에 들어가서 肺에 相通하고 孔竅가 열리고 肺에 精을 간직한다.(西方白色入通於肺開竅於鼻藏精於肺)<sup>10)</sup>

라 하였는데, 이는 肺에 關聯된 기운들이 肺에서 精의 形態로 貯藏됨을 의미한다.

### 3. 宗氣와 肺精

宗氣가 營氣와 衛氣를 經隧內로 수렴케 하는 作用을 하는 것이라면 이 機能의 物質의 基礎는 곧 脈內를 運行하는 榮養作用이 풍부한 氣인 營氣<sup>11)</sup>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므로 宗氣는 營氣에서 派生된 氣라야 한다.

한편 營氣의 生成過程이나 精의 生成過程이 水穀의 精微로부터 化生된 것으로 同一하므로 營氣와 精은 서로 밀접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宗氣는 營氣를 매개로 하여 精과 關聯하게 된다.

이처럼 宗氣가 營氣를 매개로 精과 有關한 것이라면 결국 宗氣는 肺精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다. 즉, 肺精은 宗氣라는 形態로 營氣와 衛氣를 循行토록 하는 에너지로 作用하는 것이다.

### 4. 神氣의 機能

神氣의 機能을 人體의 精神活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神氣가 魂神意識志와 같이 五藏 및 全身에 作用하는 것으로 認識하는 것이다. 『內經』에서,

5) 전국한의학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9. p.225.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5.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8.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9.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8.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

11) 전국한의학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9. p.143.

『素問·六節藏象論』: 심은 生의 本이고 神이 居<sup>12)</sup>하는 곳이다. 그 華는 얼굴에 있으며 그 充滿한은 血脈에 있다.(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脈)<sup>13)</sup>

『素問·八正神明論』: 그러므로 神을 기르려면 반드시 形體의 肥瘦와 榮衛氣血의 盛衰를 알아야 하니 血氣는 인체의 神이기 때문에 삼가 調養하지 않으면 안된다.(故養神者 必知形之肥瘦 榮衛氣血之盛衰 血氣者 人之神 不可不謹養)<sup>14)</sup>

『靈樞·營衛生會』: 血은 神氣이다.(血者 神氣也)<sup>15)</sup>

『靈樞·平人絕穀』: 五藏이 안정되고 血脈이 調和되고 잘 소통되면 精神이 이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神은 水穀에서 化生한 精氣이다.(五藏安定 血脈和利 精神乃居 故神者 水穀之精氣也)<sup>16)</sup>

라 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心에 局限하여 神氣를 說明하는 것이 아니다. 『內經』의 다른 편에서는,

『靈樞·九鍼十二原』: 節이라는 것은 神氣가 돌아다니며 出入하는 곳이다.(所言節者 神氣之所遊行出入也)<sup>17)</sup>

라 하였는데, 이는 節에서 神氣가 돌아다니며 出入한다는 것으로 既存의 神氣의 概念과는 다른 것을 說明하고 있다.

節과 관련하여 『內經』에

『素問·生氣通天論』: 九州와 九竅, 五臟, 十二關節의 氣는 모두 天氣에 通한다.(其氣九州九竅五臟十二節 皆通乎天氣)<sup>18)</sup>

『素問·六節藏象論』: 사람을 헤아려보면 또한 三百六十五에 마디가 있다.(計人亦有三百六十五節)<sup>19)</sup>

『素問·寶命全形論』: 사람에게 十二에 마디가 있다.(人有十二節)<sup>20)</sup>

라 하였는데, 이로 보면 節은 四肢의 關節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靈樞·九鍼十二原』의 節이 四肢의 關節을 의미하고 精神活動을 하는 神氣가 關節에서 돌아다니며 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靈樞·九鍼十二原』의 神氣는 精神活動으로써의 神氣로 認識할 수 없다.

한편, 『內經』의

『靈樞·本神』: 心은 脈을 藏하고 脈에 神이 깃든다.(心藏脈 脈舍神)<sup>21)</sup>

을 보면, 神氣는 脈과 關聯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脈과 관련된 『內經』의 다른 原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六節藏象論』: 심은 生의 本이고 神이 居하는 곳이다. 그 華는 얼굴에 있으며 그 充滿한은 血脈에 있다.(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脈)<sup>22)</sup>

『素問·平人氣象論』: 심은 血脈의 氣를 掌무리한다.(心藏血脈之氣也)<sup>23)</sup>

心은 脈 또는 血脈과의 關係를 說明하고 있다. 따라서 神氣는 다른 한편으로 脈 또는 血脈과 關聯한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認識해야 한다.

따라서 心에 局限된 神氣의 機能을 說明한다면 「本神」, 「六節藏象論」, 「平人氣象論」 등의 原文처럼 脈과 關聯된 것으로 認識해야 한다.

12) 원문은 '神之變也'로 되어 있으나 같은 편 다른 藏의 內容을 살펴보면 變은 마땅히 處로 바꾸어야 한다. 『新校正』에 따르면 『全元起本』과 『太素』에 '處'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黃帝內經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黃帝內經素問研究集成. 대구. 금성인쇄사. 2001. p.343. 이렇게 본다면 '神之變也'는 神氣가 居하는 處이다.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6.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01.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0.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2.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5.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7.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9.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6.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5.

앞서 宗氣를 營氣와 衛氣를 體內 循行시키는 推動 에너지로 認識한다면 心主血脈에서 말하는 心行血의 機能과 중첩된다고 하였는데, 이 心行血의 機能은 脈氣를 意味하는 것이다. 결국 心에 局限된 神氣의 機能은 脈과 關聯하고 있고, 心은 脈氣의 機能으로 心行血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神氣는 脈氣이다. 따라서 心에 있어서 神氣의 機能은 營氣와 衛氣를 經隧로 運行되도록 推動하는 것이다.

### 5. 心の精

水穀의 精微로부터 化生된 精은 腎에 貯藏되었다가 五藏으로 輸布되면 各藏에서 다시 精의 形態로 貯藏되며, 心에 들어와서도 精의 形態로 貯藏된다. 즉 『內經』에서,

『素問·金匱真言論』: 南方의 赤色은 心에 들어가서 心에 相通하고 心에 孔竅가 열리고 心에 精을 간직한다.(南方赤色入通於心 開竅於耳 藏精於心)<sup>24)</sup>

라 하였는데, 이는 心에 關聯된 기운들이 心에서 精의 形態로 貯藏됨을 의미한다.

### 6. 神氣와 心精

神氣가 營氣와 衛氣를 經隧로 運行되도록 推動하는 作用을 하는 것이라면 이 機能의 物質의 基礎는 心脈內를 運行하는 榮養作用이 풍부한 氣인 營氣<sup>25)</sup>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므로 神氣는 營氣에서 과생된 氣라야 한다.

한편 神氣는 脈氣의 다른 이름이고 營氣와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神氣는 營氣를 매개로 하여 精과 關聯하게 된다.

이처럼 神氣가 營氣를 매개로 精과 有關한 것이라면 결국 神氣는 脈氣인 동시에 心精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다. 즉, 心精은 神氣라는 形態로 營氣와 衛氣를 經隧로 運行되도록 推動하는 에너지로 作用하는 것이다.

## III. 結 論

本人은 本論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宗氣의 機能을 推動으로 說明하는 것은 心搏의 內容으로 心과 關聯된 表現으로 宗氣의 機能을 說明하는 것이 아니다. 宗氣의 機能은 營氣와 衛氣가 經隧內에서만 運行되도록 收斂하는 것이다.
2. 肺精은 營氣에서 生成된 것이며, 宗氣는 營氣와 衛氣를 체내 循行시키는 에너지로써 營氣에서 과생된 것이므로 肺精은 宗氣이다. 肺精은 水穀의 精微로부터 化生된 營氣가 經隧를 통해 肺로 들어간 것을 말하니, 肺精은 곧 宗氣이다.
3. 神氣는 全身에서는 精神活動에 關여하지만, 心에 국한해서 心精인 神氣는 營氣와 衛氣의 經隧循行을 推動하는 作用을 한다.
4. 神氣는 心에 국한해서는 脈 또는 血脈과 關聯되며, 心은 脈氣를 藏하며 脈氣에 神氣가 있으므로 神氣는 脈氣이고 이것이 바로 心精이다. 心精은 水穀의 精微로부터 化生된 營氣가 經隧를 통해 心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니, 心精은 곧 脈氣이자 神氣이다.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

25)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9. p.143.

##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3. 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大學經絡經穴學總論. 원주. 의방 출판사. 2009.
4. 전국한외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9. p.225.
5. 방정균. 肺의 機能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 學會誌 22(3). 2009.
6. 차윤근, 김경호, 윤중화. 元氣 宗氣 營氣 衛氣에 대한 考察. 韓醫學研究所論文集 3卷. 1994.